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39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8. 29.

발 의 자 : 서영교 · 임오경 · 한민수  
강선우 · 백승아 · 박희승  
이해식 · 윤준병 · 김준형  
김동아 · 황정아 · 정일영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촬영물 또는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하거나 반포한 자,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물등의 허위영상물을 반포한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경우 이를 반포·판매·임대한 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이를 소지한 자 또한 처벌토록 한 것과 달리 허위영상물의 경우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허위영상물등을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등을 반포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

의 벌금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상향하여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함(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).

##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 중 “5년”을 “6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5년”을 “6년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의”를 “제4항까지의”로 한다.

-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영상물등,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)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(이하 이 조에서 “영상물등”이라 한다)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 또는 가공(이하 이 조에서 “편집등”이라 한다)한 자는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제14조의2(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6년</u> ----- -----.
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·합성물·가공물(이하 이 항에서 “편집물등”이라 한다)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<p>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<u>5년</u>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         <p>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<u>제3항</u>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</p>	<p>-----</p> <p>-----<u>6년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1항 또는 제2항의 영상물 등, 편집물 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u></p> <p>⑤ -----<u>제4항</u> <u>까지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---	---